

첫날부터 능숙하게!

“**송파구 공약,**”



기호 **2**

- ☞ 잠실5단지등 재건축 추진활성화
- ☞ 실버케어센터 전면 재검토
- ☞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
- ☞ 성동구치소 이적지 문화복합시설, 주택개발로 지역활성화기반 마련
- ☞ 잠제공원차고지 이전 및 국내최대 생활SOC체육문화복합시설 건립
- ☞ 위례신, 위례신사선, 위례과천선 등

9:02 SKT 97%

이데일리 구독

주요뉴스 정치 **경제** 사회 생활 세계 IT

김 전 본부장은 다주택자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. 그러나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“다주택자는 안 되고 강남의 푼푼한 한 채는 되느냐”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온다. 김 전 본부장은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하고 있다.

잠실주공5단지(3930가구·1978년 준공)는 잠실일대 ‘재건축 최대어’로 손꼽히는 대단지 아파트로 전용면적 76~83㎡로 구성돼 있다. 매매 시세는 25억8000만~28억4200만원으로 부동산포털사이트에는 호가 최고 30억원에 매물이 올라와 있다.

이에 대해 김 전 본부장은 “잠실주공5단지는 1993년에 구입한 아파트로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살고 있는 집”이라며 “지금은 집값이 (의도치 않게) 많이 올랐지만 본인은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”이라고 해명했다.

김 전 본부장은 마지막으로 “(최종 후보로 낙점되면) 청문회에서는 자신있게 답변할 준비가 돼 있다”며 “청문위원들이 서울시민을 대신해서 정책적 질문에 대해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실히 답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”고 언급했다.